

효스트라다무스 최종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단어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
접사의 종류와 기능	★★
접사와 어미의 차이	★★★★★

7. 국어사 : 어휘 변화 유형

- ㉠ 어휘의 **소멸**: 존재하던 어휘가 사라지는 변화 **예** 즘은(천)
- ㉡ 어휘의 **생성**: 없던 어휘가 새로 생기는 변화
 - 예** 외국어 '네티즌'을 순화하여 '누리꾼'이라고 함
- ㉢ 어휘의 **차용**: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말이 도입되는 변화 **예** 컴퓨터
- ㉣ 어휘의 **의미 변화**: 어휘의 의미가 확대 또는 축소되거나 이동하는 변화
 1. 의미의 **확대**
 - 예** 다리(脚): (중세)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을 의미
→ (현대) '책상'이나 '지게'같은 무생물의 다리까지 의미
 2. 의미의 **축소**
 - 예** 랑 다: (중세) 생각하다(思), 사랑하다(愛)
→ (현대) 사랑하다(愛)
 3. 의미의 **이동**
 - 예** 어리다: (중세) 어리석다
→ (현대) 나이가 적다
 - 하다: (중세) 많다
→ (현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
(현대 국어의 '하다'는 중세국어로 '다'였음)
- ㉤ 어휘의 **형태 변화**: 어휘의 의미는 그대로지만 형태가 달라지는 변화
 - 예** 거우루 → 거울

2021 수능 국어 11번 [단어론]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 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효스트라다무스 3차 14pg

“언어의 역사성에 의해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내용이 적중입니다. 또한 통사적 합성어 연습을 통해서 단어의 구조와 구성방식을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이든이들은 지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효스트라다무스 최종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2021 수능 국어 13번 [단어론]

단어론	접사와 어미의 차이	★★★★★
	선어말 어미와 어말어미(종결, 연결, 전성어미) 구분	★
	다의관계, 동음이의 관계	★★
	직접구성요소	
	관형사와 부사의 쓰임과 특징	★★
	용언의 규칙활용 & 불규칙 활용	★★★★
	조사(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특히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 잘 봐	★★★★★
	품사통용	★★★★★
	동사, 형용사 구분	★★★★★

13. ㉠~㉡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물 떡볶이' 만드는 법

- 떡을 물에 ㉠ 담가둔다.
- 멸치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체에 ㉡ 걸러서 육수를 준비한다.
- 육수에 고추장, ㉢ 같은 마늘, 불린 떡, 어묵을 넣는다.
- ㉣ 하였던 떡이 빨갛게 될 때까지 잘 ㉤ 젓어 익힌다.

- ① ㉠: 예쁘-+-어도 → 예뻐도
- ② ㉡: 푸르-+-어 → 푸르러
- ③ ㉢: 살-+-니 → 사니
- ④ ㉣: 동그랑-+-아 → 동그래
- ⑤ ㉤: 굵-+-은 → 그은

효스트라다무스 최종 5pg

“이든이들 기억하냐?
용언 활용 문제 나올 때마다... 너희들 표정 안좋으면
몇번이고 용언활용 규칙 불규칙... 오늘이 마지막이야...
꼭 알고 가야해... 라며 다시 설명했던거...
진짜 나왔다. 쌤 말이 맞지? ;)



호스트라다무스 최종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출제 요소	중요도
문장성분 구분	★
이어진 문장 (부속절)으로, 대등하게 안은문장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 끼어어... 제발)	★★★★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관형절을 안은문장은 한 문장이 관형절의 형식으로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더 큰 문장을 만드는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다.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도 나눌 수 있다. 관계 관형절은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의 한 성분이 되는 경우로서, 이때 꾸밈을 받는 체언과 동일한 성분이 관형절에서 생략된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이 생략될 수 있다. '너의 쾌활한 성격을 배우고 떠난다.'에서는 '성격이 쾌활하다.'에서 주어 '성격이'가 생략되었고, '철수가 먹은 과자는 불량식품이었다.'에서는 '철수가 과자를 먹었다.'의 목적어 '과자들'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가 태어난 2002년에 월드컵이 개최되었다.'의 경우에는 '내가 2002년에 태어났다.'라는 문장에서 부사어 '2002년에'가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동격 관형절은 안긴문장 자체가 꾸밈을 받는 체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관형절로 관형절 자체의 생략되는 성분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인수가 결석한 사실을 몰랐느냐?'라는 문장은 '인수가 결석하였다.'와 '너는 (그) 사실을 몰랐느냐?'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관형절로 안긴 문장인 '인수가 결석한'의 수식을 받는 '사실'은 관형절의 내용을 동격의 형식으로 간추린 역할밖에 못하므로, 관형절 내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2021 수능 국어 14번 [문장론]

1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접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안긴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접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도 쓰인다. 다음 밑줄 친 접문장 ㉠~㉣의 쓰임을 설명해 보자.

- 기상청은 ㉠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 시민들은 ㉡ 공원이 많고 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다.
- ㉢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갔다.
- 나는 나중에야 ㉣ 그녀는 왔으나 그가 안 왔음을 깨달았다.
- 삼촌은 주말에 ㉤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들판을 거닐었다.

- ① ㉠은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 ② ㉡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 ③ ㉢는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 ④ ㉣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 ⑤ ㉤는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호스트라다무스 최종 6pg

“ 마지막까지 문장성분, 절의 역할, 안은문장 분석 강조하면서 꼭 이것만은 구분하자고 연습하던 것. 우리 이든이들은 기억하고 또 쉽게 풀었습니다. ”



효스트라다무스 최종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국어사	중세국어의 격조사 (주격, 서술격, 목적격, 관형격, 관동격)	★★★★★
	중세국어의 특이 체언(중종성, 7격용)	★★★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주체높임, 객체높임, 상대높임, 1인칭	★★★
	중세국어 의문문(나계열, 그계열)	★★
	중세국어의 비통사적, 통사적 합성어	★★
	중세국어의 어미와 접사	★★★★★

효스트라다무스 최종 6pg

“ 중세국어의 단모음과 현대국어의 단모음이 다르다는 것은 강조한 바라 익숙한 정보였을 겁니다. 거기에 중세국어 주격 조사와 서술격 조사의 음운환경에 따른 결합을 많이 연습했어요. 우리 이든이들은 거뜰히 정답!



2021 수능 국어 15번 [국어사]

15.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현대 국어와는 달리 중세 국어의 ‘ㄱ’, ‘ㅁ’가 이중 모음 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해요.

선생님: ‘ㄱ’, ‘ㅁ’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단다.

(가)

체언의 끝소리	조사의 형태	예
자음	이라	지비라[집이다]
단모음 ‘이’나 반모음 ‘ㅣ’	∅라	스시라[스시(사이)이다] 불휘라[불휘(뿌리)이다]
그 밖의 모음	ㅣ라	전치라[전초(까닭)이다] 곡되라[곡도(꼭두각시)이다]

(나)

수(금)은 이제라[이제이다], 下(하)는 아래라[아래이다]

학 생: (가)의 ㉠에서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ㄱ’, ‘ㅁ’가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호스트라다무스 최종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독서

호스트라다무스 1.2.3차 + 인문 추가



[인문] ■ 박제가, 『북학의』: 박제가와 18세기의 조선

박제가가 활동하던 18세기 후반의 조선 사회는 여러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조선 사회가 성립된 이래 지배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명나라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청나라를 인정하고 실제적인 학문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실학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대 사상 조류가 혼재하는 가운데, 서양으로부터 수용된 천주교 사상과 과학 사상 역시 당시의 사상계에 영향을 미쳤다.

[인문] ■ 박제가, 『북학의』: 이용후생 VS. 경제치용

실학은 크게 이용후생을 주장하는 입장과 경제치용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을 뜻하는 이용후생은 연암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등 북학파가 주장한 이념이다. 이들은 청나라 연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부족한 부분을 직시하며, 백성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북학', 즉 청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존 성리학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연 과학의 도입, 상공업의 육성, 기술 혁신과 해외와의 통상 무역 등을 통해 백성들의 경제생활 개선에 전반적인 관심을 가졌다.

[인문] ■ 박제가, 『북학의』: '천(天)'에 대한 관점

[인문] ■ 박제가, 『북학의』:

“재물은 우물과 같아서 쓸수록 가득 차게 된다.”

[인문] ■ 박제가, 『북학의』

: 『북학의』에 나타난 도구의 사용과 기술관

박제가는 중국의 기술과 도구 도입의 필요성을 위해, '실험'의 도입, '방법'과 '도구'의 유용성, '표준화와 규격화', '분업' 등을 주장했다. 북학의에서 중국의 효율적인 기구, 농사법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구절절 백 마디 설명보다 박제가의 글을 직접 읽어 보는 것이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2021 수능 국어 16~21번 [독서]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호스트라다무스 최종 37~41pg

“ 마지막 수업에서 인문 지문 적중!
효정쌤 曰: “논리학보다는 철학, 서양철학보다는 동양철학. 유학보다는 실학. 조선후기!”
그래서 박제가. 북학의 자료 제공! ... 그리고 적중!



호스트라다무스 최종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무녀도(김동리)	종교적으로 접근해석 X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사이의 대립으로 해석	수완109
	1965년 어느 이발소	시대적 배경, 각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 위주로 출제,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 파악 중요.	수완234
3	사막을 건너는 법 (서영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느끼는 환멸, '나'보다 노인이 더 먼저 깨달은 것 = 삶의 허무. 사막의 의미 : 삶의 공간, 애환, 좌절, 거짓말의 의미 : 노인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	수특173
	임종(염상섭)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삶에의 욕구, 편의주의 이기주의적 가족 비연계 [만세전] 염상섭 : 일제 강점기 우리민족의 비극적 상황에서 지식인의 각성과 태도	수특161
		공사관 미장이 장씨 : 서민계층 대변 퇴직한 신문기자 설 부장 : 지식인계층 대변 대하(구어체포함) 르 투체 사히즈르(브카인	

2021 수능 국어 22~25번 [현대소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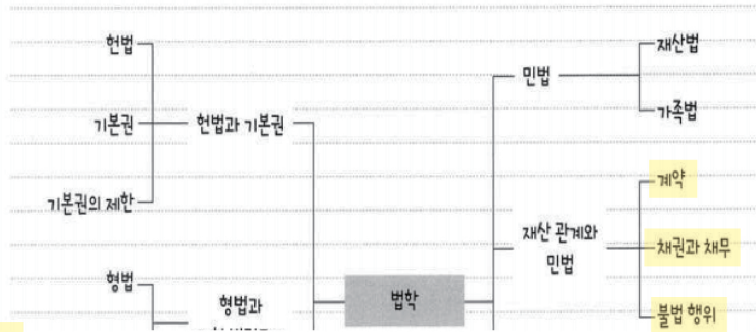
호스트라다무스 최종 34pg

“ 현대소설에서는 인간 삶의 본질과 고뇌 관련한 주제에서 나올 가능성을 언급. 여성 소설가의 작품 출제 가능성 언급. 김동리와 서영은의 관계를 언급하며, 작가의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주지함. 둘 중 한 작가의 작품이 연계 된다면 [무녀도]보다는 [사막을 건너는 법]에 더 집중할 것!



호스트라다무스 2차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법학 개념 구조도



민법

-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법
- 규율 대상: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등 사적 법률관계 전반
- 민법의 구성
 - 총론(제1편 총칙):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규정
 - 재산법(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물건에 대한 권리, 계약, 불법 행위 등을 규정
 - 가족법(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재산법과 친족, 상속 등을 규정

계약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 ·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채권과 채무

-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
- 기술문장 보기 :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019 수능]

채무 불이행

-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법률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기술문장 보기 :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9 수능]

불법행위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 성립 요건: 가해 행위,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 관계, 책임 능력
- 기술문장 보기 :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2016.6월 모의평가]

2021 수능 국어 26~30번 [독서]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상 권리자에게 계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호스트라다무스 2차 12~16pg

“ 올해 사회 영역은 경제보다 '법'지문 강조!
 파이널 수업에서 법 개념 구조도 소개!
 특히 민법, 계약, 채권, 채무, 채무 불이행 읽기 자료
 제공하며, 기본 용어 숙지 강조.”



효스트라다무스 최종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3. 그동안 나왔던 영웅소설하고 다른 영웅의 모습인 인물들을 기억해주세요.
- 여성영웅 : 홍계월, 방한림, 금방울(=금령), 박씨전의 박씨
 - 문재영웅 : 무가 아닌 문으로 나라를 구한 최치원
 - 사대부가 아닌 영웅 : 임진록에 나오는 김덕령(의병), 사명당(승려), 광재우(홍이 장군), 논개(기녀)
 - 전쟁소설이지만 영웅이 아닌 인물 : 최척전의 최척
6.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비판.
- 유우준전 :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몰라
 - 유언전, 황새결승 : 조선의 송사제도에 문제 있어.
 -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호질, 양반전, 허생전 : 양반이 자기 역할 못하네. 신분이 낮고 외양이 아름답지 못해도 참다운 사람이 있네.
 - 최고운전 : 우리 지배계층 너무 사대주의 아니야? 우리 민족에는 최치원처럼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

1	숙향전의 내용 -> 춘향전 등에 영향	
	이본이 매우 많아서 세부적인 내용 꼭 확인 심청가와 함께 제시되어 판소리 사설이 판소리계 소설에 영향을 준 요인이나 차이점 찾으라고 할 수도 있음. 다른 판소리계 소설도 출제 가능.	수특34
	최치원의 영웅적 면모(문재, 도술-비현실성) <보기>로 최치원의 삶과 한시 작품 연결 (추야우중, 제가야산독서당) 우리민족의 주체성이 강조된 요소(사대주의 탈피, 중국과 비교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적 우월성 강조) 당대 사대부의 사대주의 비판 위해 유교적질서, 가부장적 질서 탈피	수완231

2021 수능 국어 31~33번 [고전소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재예(才藝)가 당대에 빼어났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효스트라다무스 최종 28~29pg

“ 최고운전 출제 가능성 1순위 적중.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정신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주제는 현 시기적(?)으로 적절한 주제의식임을 강조. 특히 수능완성에 수록된 부분이 아닌 최치원이 파경노가 되어 승상 나업의 집에 들어가는 서사 소개 및 숙지 강조.



호스트라다무스 최종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문학

고전시가 출제 예상 _서효정

1. 가사 출제 가능성 가장 높음. (가사, 시조는 다 읽어봐 그냥)
2. 시조가 나온다면 연시조 or 여러 개의 시조로(예비시행 유형 복합지문에 시조와 다른 갈래(한시, 고려가요, 고대가요, 가사 일부를 같이 출제할 수 있음.)
3. 가사와 고전수필, 현대수필 복합지문 가능성
4. 작가 연계 가능성이 높은 작가(정철, 박인로, 이규보, 정약용, 최치원)

순위	작품, 작가	#출제요소	EBS
1	만인사(안도환) 만인사답(안도환)	유배, 대화체, 화자설정 다름, 힘들어서 "죽고싶어", "죽지마", 임금님 나 언제 불러?	수특57 수완157
	누항사(박인로)	임진왜란 후, 조선후기, 양반의 구체적 생활, 안빈락도 힘드네,	수완209
	갑민가(작미)	그냥 갑산에서 살아(대화체) 원래 나 양반, 세금내기 힘들다. 민원 올려도 무시, 북청으로 가야겠다.	수특61
	명월음(최현)	조선후기 전쟁 중, 당쟁으로 조선이 힘드네. 구름을 치워버리고 싶네 거울이 되어 달빛을 세상에 보내고 싶어. 나쁜 거울, 착한 거울,	수완95
	사미인곡(정철)	충신연주지사, 정철은 충신, 유배, 여자인 척.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	수특54

2021 수능 국어 38~42번 [갈래복합]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 가사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훈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나) (나) 시조

창 밧긔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호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 신희 -

(다) (다) 고전수필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갯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갯거리에 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호스트라다무스 최종 24pg

- 가사 출제가능성 적중.
- 시조, 고전수필과 갈래복합지문 적중.
- 대망의 정철 사미인곡 1순위 적중!
- 효정쌤이... 출제하셨어요?ㅋㅋㅋㅋ



효스트라다무스 최종 자료 (수능 전 제공 자료)

문학 **현대시** 출제 예상 _서효정

2. 고향에 대한 현대시 출제 가능성 높음

(고향이 그리움, 고향에 있으니까 좋음, 고향을 상실해서 슬픔, 고향을 상실하게 한 전쟁, 일제 치하, 근대화 산업화가 싫음.)
(오장환, 이용악, 백석, 신경림 작가연계 가능성 높음)



3

춘설(정지용), 인동차(정지용-비연계) 홀린 사람(기형도), 그리움(이용악), 길을 찾아서(4- 명암리 길(천양희), 마음의 수수밭(천양희-비연계), 꽃덤불(신석정), 꽃씨(문병란), 눈물(김현승),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긴다.(고정희), 우리동네 느티나무들(신경림), 윤사월(박목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신동엽), 종소리(박남수), 가을에(정한모),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효스트라다무스 최종 26~27pg

“ 효정쌤은 말했지...
현대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올 때가 되었던말야...
을 ebs에 김소월 한용운의 그리움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고향이 나올 순서야~ 그리고... 이용악 [그리움] 적중!



2021 수능 국어 43~45번 [현대시]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용악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